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가로열쇠>

-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는 것. 선생님의 말씀은 단순한 000이 아니었던 것이다.
- 몸치장을 하는데 쓰는 여러 가지 물건.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브로치 따위가 있다.
-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서른 살 00 되어 보이는 남자.
- 조선 시대의 명기. 자는 명월. 서경덕, 박연 폭포와 더불어 송도삼절이라 불리었다. 한시와 시조에 뛰어났으며 작품에 한시 4수가 있고, 시조 6수가 '청구영언'에 전한다.
- 영화나 소설 따위에서, 변화와 굴곡이 많고 규모가 큰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파란만장했던 삶이 0000처럼 펼쳐졌다.
- 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 그는 침대 0000에 걸터앉았다.
-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몸을 의지하기 위하여 짚는 막대기.
- 늘어 가는 무렵.
- 걸어 다닐 때 발을 보호하고 장식할 목적으로 신고 다니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집을 엮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 기구.
-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기호는 dB.
- 불을 끄는 기구.
- 상체와 하체를 좌우로 비틀면서 추는 춤. 1960년대 초부터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유행한 춤으로, 4분의4 박자의 리듬이 뚜렷하고 빠른 음악에 맞추어 춘다.

<세로열쇠>

-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그의 노래 실력은 전 교에서 00이다.
-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선 모양을 이르는 말.
- 동화에 나오는 여주인공. 계모와 계모의 딸들에게 구박을 받았는데 궁중 무도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잃어버린 유리 구두 한 짝이 인연이 되어 왕자와 결혼한다.
- 바지에서 다리를 꿰는 부분. 비가 많이 와서 000 00가 다 젖었다.
- 나무나 풀의 살아 있는 날 잎.
- 집안의 재산을 다 써 없애고 몸을 망침.
- 시간상이나 순서상의 맨 끝.
- 언니와 여동생 사이를 이른다.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 전기를 일으키는 시설을 갖춘 곳. 수력·화력·원자력·풍력·조력·태양광·지열 따위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일으킨다.
-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껍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초대할 사람. 오늘밤 토크 쇼에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000로 나온다.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번지 (감삼동 68-4) 4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 pr5726000@naver.com

→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 정답자 발표 : 1,343호



1,193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이용권 2매 ☎1688-8511

윤경식(달서구 감삼남3길)
조재형(달서구 용산서로)
강민우(달서구 달구벌대로)

김민희(달성군 구지면)
홍희순(달서구 선원남로)
서미애(달서구 달구벌대로)

<1,193회 정답>

업신여김	나	베
동	이	개
이	돈키호테	나
	들	루브르
홍	육십갑자	로
청와대	국물	대
망주	장	야구
청승	팔만대장경	증인
무뚝뚝		

♣ 가족과 함께 풀어 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화)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www.prsinmun.co.kr (우편번호: 42640)

- ▶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 ▶ 등록번호 대구다 01130
- ▶ 간별 주간
- ▶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株)
- ▶ 발행인 김현두
- ▶ 편집인 김현두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prsinmun.co.kr

푸른신문 구독신청 방법

- 구독료 : 1년 15,000원
- 입금계좌 : SC제일은행 556-20-270245 예금주:푸른신문(김현두)
- 전화 : (053) 572-6000 팩스 : (053) 572-6006

달서구·달성군 지역신문 '푸른신문'은 지역밀착형, 주민밀착형 지역신문으로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중앙지나 지방 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훈훈하고 작은 이야기들 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